

회원 모집 요령: 신설 클럽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클럽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은 클럽 신설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클럽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클럽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클럽이 타 클럽 신설에 도움을 준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첫 시작 당시와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바람직한 경험을 되새겨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늘리는 효과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클럽 모두가 타 클럽 신설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관점을 지닌 새 회원들이 신설 클럽에 들어와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클럽 신설을 후원하는 주변 클럽들은 새 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설된 클럽이 여러분의 인근 지역에서 드림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소롭티미스트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서 소롭티미스트가 무엇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게 되며 우리는 다함께 집단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클럽 신설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클럽 신설에 필요한 단계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자 새로 발표된 [클럽 신설 방법 안내](#)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클럽 신설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설 협력 팀을 결성합니다!** 신설 협력 팀은 정식 후원 클럽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팀과 리전 지도자들로 구성된 연합 조직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 **중점 지역을 선정합니다.** 클럽에서 도움을 제공할 여성 및 소녀들은 어느 지역에 주로 거주합니까? 지역의 크기가 매우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삼아야 할지를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선정해야 합니다.
- **잠재 회원들을 만나 정식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잠재 회원들이 서로 소식을 알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1~2주 동안 집중 실시합니다.
- **정보 공유 회의.** 정보 공유 회의에서 소롭티미스트 단체, 사명, 드림 프로그램, 국제적 구조, 회원의 책임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운영 회의.** 설립 신청에 필요한 창립 위원 수 12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가입할 회원들과 함께 운영 회의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거나 누구를 최초 임원으로 정하고 클럽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최초로 실행할지 등 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신청.** 12명의 창립 위원이 정해지면 운영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설립 신청을 합니다. 창립 위원 추가는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 **설립 축하!** 설립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과정에 기여해 온 모든 구성원의 노고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설립 90일째를 자축합니다.

여러분은 클럽 신설 과정을 통해 우리 단체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 리전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한 지역에서 그것을 입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44회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SIA) 2년 주기 총회에서 한국 리전의 최오란 전임 총재께서는 한국의 회원 모집 성공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한국 리전 지도자들은 회원 모집 전략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모든 기존 클럽들이 회원 모집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 리전에서는 신규 회원 및 신설 클럽에게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2014-2016년도에 총 11개의 클럽을 신설하고 매년 꾸준히 회원 규모를 늘려 2016년 6월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을 증가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클럽들이 신설되었으며, 신설을 도운 거의 모든 기존 클럽들에서도 회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클럽들이 이미 SIA의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리전 곳곳의 회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귀 클럽에서도 클럽을 많이 신설하여 우리의 집단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새로운 클럽을 만들면서 넘치는 정열과 에너지를 되살림으로써 한국 리전의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따르고 더욱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